

쪽방에 거주하는 여성 독거노인의 삶에 관한 연구

이 현 주
(성균관대학교)

안 기 덕*
(인천재능대학교)

이 연구의 목적은 쪽방에 거주하는 여성 독거노인의 삶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노인 7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귀납적인 범주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참여자들의 '쪽방촌 정착의 실마리'는 '남편의 상실'로부터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쪽방촌 정착 후의 삶'은 '쪽방 관리' 일을 하며 오로지 '자식만을 위한 삶'이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삶'은 '고락상생(苦樂相生)'의 삶인데, '건강하지 못한 몸'과 '비수급자의 삶'은 고(苦)의 삶을 의미하고, '자녀지원군'과 '차별이 없고 인정이 넘치는 관계망'은 락(樂)의 삶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둘이 현재의 삶에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쪽방을 관리하는 여성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적·실천적·학문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요용어: 여성 독거노인, 쪽방, 빈곤, 질적 연구

*교신저자: 안기덕, 인천재능대학교(dool27@jeiu.ac.kr)

■ 투고일: 2013.4.29 ■ 수정일: 2013.6.5 ■ 게재확정일: 2013.6.22

I. 연구의 필요성

대도시의 큰 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쪽방에는 주로 어떠한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허름하고 열악한 지역 환경 탓에 가난한 취약 계층이 거주할 것이라는 예측을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역에 상주하는 노숙인으로 인해 역 인근의 쪽방촌 거주자들은 노숙인과 동일시되는 경향도 있어(권지성, 2008) 쪽방은 노숙과 관련된, 이를테면 노숙인이나 혹은 탈노숙 직전 후 사람들의 불안정한 임시 거처로 여겨지기도 한다. 결국 쪽방 거주자들이 가지는 공통점은 빈곤으로 수렴된다고 할 수 있는데 외환위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쪽방과 관련된 연구의 초점은 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노숙인과 실직한 중장년 남성들에게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어느 지역 공동체가 그러하듯 쪽방이 밀집해있는 쪽방촌 역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기 마련인데, 인근 타지역에 비해 월세가 싸고 보증금 부담이 적은 특성 때문에 쪽방촌에는 빈곤의 극한에 놓인 또 다른 계층인 노인들도 상당수 거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쪽방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에 대한 조사나 연구가 거의 실시되지 않아 쪽방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독특한 삶은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최근에 취약 계층인 남성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송민경, 2005; 허소영, 2009)가 진행된 바가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그동안 탐색된 적 없었던 쪽방에 거주하는 남성 노인의 생활 실태와 문제를 밝히고(송민경, 2005) 쪽방 거주자로서의 삶의 경험이 갖는 의미와 본질을 탐색하기도 했다(허소영, 2009). 그러나 이러한 연구가 독거노인이라는 유사한 대상에 관한 연구라고 할지라도 여성 독거노인의 삶까지 포괄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남성과 여성은 생애 전반에 걸쳐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안기덕, 2012), 빈곤이나 독거로 인한 외로움 등 자신의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기초해, 본 연구가 쪽방에 거주하는 여성 독거노인에게 연구의 초점을 두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독거노인은 '여성'이라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젠더와 '노인'이라는 연령의 위험, '독거'라는 어려움이라는 다중 위험(multi jeopardy)을 가진 계층이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여성 독거노인은 일상생활 유지 뿐 아니라 건강 및 의료보장, 주거, 사회적 지위와 역할 상실 등에 있어서 일반 노인들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으며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가지

고 있어 삶의 질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심영미, 2001). 이를 바탕으로 유추해보자면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여성 독거노인 역시 적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여성 독거노인의 삶의 문제를 주제로 하는 여러 연구에서 건강, 돌봄을 제공하는 자녀의 유무, 경제적 상태 등의 특정 요인이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명해 왔다(전길양·김정옥, 2000; 정혜정 외, 2000; 유광수·박현선, 2000; 허선영, 2003; 이인정, 2009; McInnis & White, 2001; Knight et al., 2003; Lowenstein et al., 2007; Hooyman & Kiyak, 2010). 그러나 실제로 여성 독거노인의 삶은 어떠한지, 어떠한 삶의 과정을 거쳐 지금의 어려운 삶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들이 삶의 과정에서 경험한 것들은 무엇이며 그러한 경험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둘째, 상기한 바와 같이 여성 독거노인이 쪽방 거주자의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¹⁾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연구나 조사를 통해 쪽방에 거주하는 여성 독거노인들의 삶에 대해 밝혀진 바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약 0.5평에서 1평 정도의 '성인 한 사람이 잠만 잘 수 있을 정도의 매우 작은 방'으로 알려져 있는 쪽방은 세면이나 취사를 위한 공간이나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이 없는 최저주거기준 미만의 거처를 의미한다(김선미, 2011). 개념에서 추측할 수 있듯 쪽방은 공간 자체가 매우 협소하고 생활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매우 열악하다. 뿐만 아니라 쪽방은 사창가를 비롯해 여관·여인숙, 용도가 폐기된 축사와 공장의 기숙사, 그리고 최근 현대판 쪽방으로 불리는 고시원까지 그 형태가 다양한데(김선미, 2011), 주로 여성 독거노인들이 이용하는 쪽방은 여관과 여인숙이나 무허가 건물로, 복도의 폭이 좁고 계단이 성글고 가파르며 잠금장치가 허술할 뿐 아니라 건물 자체가 어둡고 외진 골목에 위치해 있다. 또한 건물 자체가 매우 낙후하였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적절한 냉난방이 어려워 체온 유지 기능이 떨어지는(권중돈, 2012) 노인이 생활하기에 부적절하다. 따라서 이러한 쪽방에 거주하는 여성 독거노인들은 항상 크고 작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그러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 독거노인들의 삶은 신문이나 tv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종종 다루어졌지만(경향신문, 2013), 연구나 조사를 통해서도 전혀 탐색된 바가 없다.

1) 이동이 잦은 쪽방촌의 특성상 거주자의 비율을 정확하게 추산할 수 없어 여성 독거노인이 얼마의 비율을 차지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중장년 남성들이 70-80%를 차지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허소영, 2009)에 근거하였을 때 여성 독거노인은 5-10%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쪽방에 거주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여성 독거노인들은 매우 빈곤한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즉 쪽방에 거주하는 여성 독거노인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과 독거, 노인이라는 다중 위험과 함께 빈곤이라는 난제를 함께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해 사회복지적 개입이 시급한 취약 계층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쪽방의 이미지가 노숙인들과 잠재적 노숙인들의 불안한 거처로 굳어지면서 쪽방 지역과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연구는 노숙인 문제와 거주자 문제를 분리하지 않고 접근하였다. 즉 다양한 주민층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여성 독거노인의 삶의 의미를 제대로 탐색해 볼 수가 없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쪽방에 거주하는 여성 독거노인의 삶의 이야기를 그들 자신을 통해 들여보고, 그들의 관점에서 그려보아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경험을 담기에 적합한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쪽방에 거주하는 여성 독거노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쪽방에 거주하게 되었으며 쪽방에 거주하면서 경험한 것들이 여성 독거노인에게 어떤 의미로 체화되었는지, 또한 어떻게 그들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실마리는 쪽방에 거주할 수밖에 없게 된, 또한 지금도 쪽방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는 여성 독거노인의 삶을 이해하는 데 가장 필요한 물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쪽방에 거주하는 여성 독거노인들의 삶을 탐색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기존 문헌 고찰

1. 쪽방 관련 연구

쪽방은 외환 위기 이후 급증한 노숙인이나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이 임시적인 거처로 선택하는 공간으로 주목받으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서울과 부산, 인천, 대전 등 큰 역을 중심으로 밀집해있는 여관·여인숙 건물들이 노동력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한 1960년대에는 근로자들의 임시 거처로 활용되었으나 세월의 흐름으로 인해 건물과 그

지역 일대가 낙후되면서 한 때 번성했던 임대업의 본래 기능을 잃고 노숙인이나 극빈곤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기 때문이다.

쪽방은 화장실이나 부엌 등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한 매우 협소한 공간을 일컫는 것으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중장년의 단신 남성이 전체 거주자의 70-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허소영, 2009). 이와 같은 쪽방의 특성에 따라 관련 연구는 주로 쪽방과 쪽방촌의 특성, 쪽방 지역의 형성 과정과 특징 등을 탐색한 연구(하성규, 2000; 이준호, 2001; 노병일·윤경아, 2004; 이소정, 2006; 채명진, 2008; 김민진, 2009)와 쪽방 거주자들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특히 쪽방 거주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장년 남성들의 보호·근로·자활을 통한 탈빈곤을 유도하는 사회복지정책이나 서비스 등을 제언한 연구(김미량, 2008)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다양한 쪽방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쪽방상담소나 홈리스지원센터 등 민간기관 설립과 운영의 근간이 되어 쪽방 거주자들의 열악한 생활을 지원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상기 하였듯 연구의 대부분이 중장년 남성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들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및 복지서비스 관련 내용만을 다루고 있어 쪽방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또다른 취약 대상인 노인이나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삶을 살펴볼 수는 없다는 한계를 노정함과 함께 다양한 대상의 고유한 특성과 개별적인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적 개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아우르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이현주·엄명용, 2013).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취약 계층의 삶을 탐색하고자 노인이나 복지관을 이용하는 남성 노인들의 삶을 탐색하는 연구(송민경, 2005; 허소영, 2009)와 쪽방 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일상생활과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및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권지성, 2008)가 실시된 바 있다. 현재까지 매우 소수이긴 하나 이러한 연구가 실시됨에 따라 쪽방 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계층에 대한 이해의 바탕이 마련되어 지자체나 인근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남성 독거노인들을 위한 식사 배달이나 지역 사회서비스의 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역시 남성 독거노인에게 국한되어 있어 지금까지 쪽방에 거주하는 여성 노인의 삶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 즉 이들이 쪽방에 거주하게 된 이유와 이들이 경험한 쪽방 거주자로서의 생애의 경험과 그 의미는 남성의 그것과 다를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어 여성 노인에 대한 이해의 바탕이 전무한 실정인 것이다.

2. 여성 독거노인 관련 연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인 수급자들 중 여성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80% 이상이고 65세 이상 여성 노인의 빈곤율이 73.6%로, 모든 연령 계층 중 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자료(통계청, 2008)를 통해 여성 노인의 상당수가 빈곤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령의 여성화(feminization of old age)’ 현상은 여성 노인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였고 이에 따라 남성 노인에 비해 여성 노인이 경제적·사회적·신체적인 모든 측면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음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여성 노인들은 남성 노인들에 비해 평균 수명이 길어 여성을 독거노인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커 빈곤과 독거의 문제가 중첩됨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겪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여성 독거노인은 다른 어떠한 계층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선행된 여성 독거노인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빈곤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독거로 인한 사회적인 지원의 부족, 노년기 특성인 건강의 악화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먼저 여성 독거노인들이 갖는 공통적인 문제인 빈곤은 그동안 여러 연구들을 통해 다루어져왔는데(박기남, 2004; 안기덕, 2012), 1990년도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여성 독거노인의 빈곤의 원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빈곤의 원인을 노년기의 특정한 사건의 결과로 보는 관점(최선화, 1999; 한경혜, 2004; Waehrer & Crystal, 1995)과 노년기 이전 생활의 연속으로 보는 관점(강유진·한경혜 2003; Hoden & Kuo, 1996; Choudhury, 1997)으로 대별되는데, 전자의 경우 소득활동 중단이나 사별, 중증 질환 발병과 같은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 여성 독거노인이 빈곤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가부장제를 중심으로 구조화된 사회 내에서 여성들이 일생을 통해 겪어 온 노동 경험의 부족 문제, 낮은 임금, 낮은 연금 각출료로 인한 불리함, 노후의 소득활동 중단 등의 문제가 지속되어 노년기에 더 큰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주장한다(박미정, 2010). 그런데 이와 같이 연구의 관점은 양분되나 이후의 빈곤한 여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빈곤의 원인이 상기한

서로 다른 입장을 관통하는 것으로 수렴되며, 빈곤의 원인과 함께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즉 빈곤한 여성 독거노인들 중 상당수는 국가로부터 공공부조를 제공받고 있지만 급여의 정도가 충분하지 못해 '빈곤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어(안기덕, 2012) 항상 경제적 어려움을 느낄 뿐 아니라 불충분한 영양섭취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Ha & Park, 2002). 또한 수급권자가 아닌 여성 독거노인은 자녀는 있으나 실제로는 부양받을 수 없는 처지이거나 혹은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더라도 안정적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집세 혹은 세금을 내기에도 벅찰 정도로 금전적인 여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김기태·박봉길, 2000; 석재은 외, 2003). 결국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통해 여성 독거노인은 빈곤의 원인과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빈곤으로 인해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로, 여성 독거노인은 필요한 사회적 지원이 결여되어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고 있음이 많은 연구를 통해 지적되면서 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김기태·박봉길, 2000; 백학영, 2006; 심문숙, 2007; 이인정, 2009; McInnis & White, 2001; Lowenstein et al., 2007). 일반적으로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노인들이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고독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지만 여성 독거노인의 경우 전체 노인²⁾보다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이며(이신영·김은정, 2011), 노년기에 배우자나 형제·자매, 자녀나 친인척의 죽음, 실직과 질병 등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지만 사회적 자원의 부족으로 이를 극복할 능력은 적어(안기덕, 2012; McInnis & White, 2001) 우울, 자살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유광수·박현선, 2003; 한혜경·이유리, 2009; 송영달 외, 2010; 성미혜 외, 2011; Dean et al., 1992; Mui & Burnette, 1994; Yeh & Lo, 2004). 특히 이와 같이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독거생활은 노인의 기본적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지지 자원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발생하는 불유쾌한 정서인 만성적인 외로움을 촉발하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노인에게 있어 외로움이란 정서적인 안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여성 독거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의 하나로 사회적 지원 체계의 확립 및 다양한 사회적 지원의 제공을 역설한다(이형실, 2003; 정병은, 2007; 김수현 외, 2008; 이신영·김은정, 2011; Dwyer, 1994; Litwin, 2004; Lowenstein et al., 2007).

²⁾ 전체 노인은 노인단독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등을 모두 포함한 노인집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또다른 연구들은 노년기에 들어 여성 노인들이 다양한 질병으로 건강이 악화됨에 주목하면서 신체적·심리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지적 개입 전략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여성 독거노인은 가족 동거노인보다 정서적·정신적으로 덜 건강하며(유광수·박현선, 2003) 빈곤으로 인해 건강 유지와 질병 치료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건강이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건강 영역이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으로 취급되면서 질병 문제가 사회적 개입을 통해 치료해야 할 것이 아닌,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하도록 하여 전반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있다는 것이다(박미정, 2012; Ha and Park, 2002). 특히 이러한 노인의 건강 상태는 삶의 만족도와 직결되는 요인으로,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정혜정 외, 2000; 최영, 2005; 이봉재·오윤진, 2008; 박명화 외, 2009; Lowenstein et al., 2007).

Ⅲ. 연구방법

1.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쪽방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독거노인의 삶을 탐색하기 위해 질적 연구의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 '쪽방에 거주하는' 여성 독거노인에 대해 알려져 있는 바가 거의 없어 이들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며 본 연구의 목적이 객관적인 양상이나 실태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당사자들의 주관적인 의미를 탐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질적 연구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의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그런데 질적 연구에는 현상학을 비롯하여 근거이론과 문화기술지 등 세부 다양한 연구방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론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연구방법들의 혼합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연구자들은 학문의 전통, 혹은 주제에 따라 다양한 연구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접근들을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기본적인 접근방법을 적용하였다.

2. 연구의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시에 위치한 쪽방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독거노인을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쪽방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실시한 경험이 있어 지역 주민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연구자(주저자)가 2012년 8월에 쪽방촌에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에 동의한 여성 독거노인들 7명으로 선정하였다.³⁾ 연구 참여자의 모집 및 면접의 기간은 2012년 9월 한 달간이었으며 연구 참여자에 대한 일반적 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

	연령	가족과의 관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및 경제적 상태
		남편	이혼	
사례 1	74세	남편	이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수급 여인숙을 관리하며 무료 월세방에서 생활
		자녀	없음 딸(사망), 아들(왕래없음)	
사례 2	67세	남편	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월 45만원 수령) 20만원 월세 단칸방에서 생활
		자녀	자녀 없음	
사례 3	69세	남편	이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수급 여인숙을 관리하며 무료 월세방에서 생활
		자녀	없음 딸(정신분열증), 아들(신용불량자)	
사례 4	72세	남편	이혼(노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수급 폐지 수집하여 생활비 마련
		자녀	자녀는 있으나 도움 없음 딸(간간히 왕래), 아들(사망)	
사례 5	68세	남편	이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수급(공공근로로 생활비 마련) 20만원 월세 단칸방에서 생활
		자녀	없음 아들 남편에게 주고 이혼	

3) 본 연구에서는 수급이나 노동을 통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노인의 삶을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10명의 쪽방에 거주하는 여성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한 자료 중 자신의 명의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 3명의 자료를 제외한 7명의 심층 면접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를 실시하기 앞서 주저자는 동년 2월부터 쪽방촌 주민들과 잦은 만남을 가지면서 신뢰 관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지만 충분한 면접의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자료가 포화되어 자료 수집을 중단하였다. 자료 수집은 본 연구 참여자 7명에게서 먼저 실시하였고 자료가 포화된 이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들을 면접하는 순으로 진행하였다.

	연령	가족과의 관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및 경제적 상태
		남편	별거	
사례 6	74세	남편	별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수급 • 여인숙을 운영하여 생활비를 마련
		자녀	배다른 자녀들을 양육하였으나 큰 도움은 없음	
사례 7	72세	남편	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수급 • 기초노령연금(월 9만원)으로 생활
		자녀	왕래는 하나 도움은 전혀 없음	

3.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면접은 연구 참여자의 집과 집 앞 공터 등지에서 사전에 약속된 시간에 이루어졌으며 주로 반구조화된 질문을 이용하였다. 면접의 시간은 한 회당 90분-120분 동안 이루어졌고 참여자마다 1-2회의 만남을 가졌으며 매번 동의를 얻어 녹취를 하고 면접 노트를 작성했으며 의문이 나는 부분은 즉시 물어 곱해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였고, 필요한 경우 재방문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을 각각 연구자가 만나 심층적인 인터뷰를 수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렇게 취합된 자료는 필사하여 연구 참여자(사례)별로, 또 연구 참여자(사례)들을 비교하면서 분석하였다. 즉 연구문제에 입각하여 각 사례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면서 유의미한 주제를 찾아내었고 모든 사례의 분석 후, 사례들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하면서 주제들을 발견해 가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엄격성 및 연구의 질 검증을 위해 먼저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참여자 검토'를 통한 확인과정(일치과정, Corespondence)을 실시하였다. 본인들의 이야기가 왜곡되어 표현되지 않았는지, 연구자가 곡해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였다. 또 다원화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자의 동료 지지 집단에게 의견을 들어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연구자 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연구의 질을 보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쪽방촌 정착의 실마리

참여자들이 살아왔던 시기를 고려해 본다면, 빈곤할 수밖에 없는 문화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이 가난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변수가 된다. 즉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성장한 참여자들 또래에서 ‘가난’은 생득적 조건의 일부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난과 함께 이들을 쪽방촌으로 정착하게 만든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 있었을까? 먼저 여기서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가. 남편의 상실(喪失)

상실은 어떤 것이 아주 없어지거나 사라진 상태를 의미한다. 참여자들에게 ‘어떤 것’은 바로 남편이었다. 여성에게 ‘일’, ‘가족’ 양립이 화두인 요즘 시대와 달리, 참여자들이 아이들을 키우던 시기, 경제적 역할을 주로 담당했던 사람은 남성, 즉 남편이었다. 따라서 남편의 사망에 따른 상실은 여성에게 경제적으로 매우 큰 부담일 수밖에 없었고, 참여자들이 어쩔 수 없이 생계의 최전선으로 나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참여자들이 생존을 위해 가진 것은 ‘몸뚱이’ 밖에 없는데, 내가 일을 해야지만, 나의 생존을 넘어서 가족의 생존이 가능해지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옛날에는 맹장이 터져서 시골서 맹장이 터졌잖아. 인제 00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복막염이라고 그러데. 그래서 인제 또 꼬맸는데 다 나오려고 하면 또 재발이 되고 그러다가 오래 오래 인제 또 그냥 나쁜 병도 생기고 그러데. 고생하다 돌아가셨어. <참여자 7>

그런데 상실은 비단 남편의 ‘사망’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존재라는 것은 곧 ‘있음’을 의미하는데, 남편이 있더라도 남편의 역할과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남편의 ‘있음’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시대적 상황 하에서, 생존의 최소 가능조건과 관련해서는 남편의 경제적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하지만 참여자 2의 남편은 빚보증을 잘못 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아, 우리가 00서 무슨 슈퍼마켓을 크게 했는데 누가 보증이 없어가 아저씨(남편)가 보증을 잘 못 서가지고, 걸로 다 넘어 가버렸어. <참여자 2>

참여자들의 남편은 경제적으로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참여자 4는 남편이 가족은 뒷전이고, 노름을 일삼다 재산을 모두 날려 버렸다고 구술했다. 참여자 3과 참여자 5의 남편은 바람을 피며,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의 남편은 돈을 갈취하고 이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참여자 3은 ‘볶아 먹고, 볶아 먹어’라고 구술했다.

(돈 때문에) 하도 하도 볶아먹어서. 볶아먹어, 저 가게 할 때. 가게 좀 보라하면 돈 다 감춰갖고 가서 돈 다 써 불고 술 먹고 계집질하고 그러고 들어와 갖고 (행패를 부리고)… <참여자 3>

이러한 과거의 상황을 회고하며,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의 자식도 ‘징그러움’의 대상으로 남편, 아버지를 지목하고 있었다. 가족은 한국사회에서 ‘돌봄’의 공간으로 신성시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기대를 무참히 저 버린 대상이 바로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것이다. 참여자들이 처한 최초의 가난은 우리 사회 일반이 그 당시 겪었던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남편의 사망, 빚, 불륜, 폭력 등에 따른 남편의 상실은 여성인 참여자들이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생계의 최전선으로 내 몰게 된다. 이처럼 참여자들의 가난은 최초 남편의 상실로 귀결되는 가난임을 알 수 있다.

나. 쪽방촌 정착

생계의 최전선에 몰린 참여자들이 정착한 곳이 바로 ‘쪽방’이다. 쪽방은 단순히 좁은 평수의 방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국사회에서 쪽방은 가난과 동의어이다. 달리 말하자면, 생의 마지막에 몰린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짜구려’ 삶터이다. 참여자들은 남편의 상실로 가난의 상징과도 같은 쪽방촌에 정착하게 된다. 특히 참여자 2의 구술은 당시의 상황을 매우 생생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 남편의 빚보증으로 전 재산을 날린 참여자 2는 새로운 삶터를 찾아 이곳저곳을 떠돌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이 ○○지역

의 쪽방촌이었다. 그런데 이사를 자주 다니던 와중에 딸은 가난 때문에 병원 근처도 가보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구술했다.

집도 그냥 웬만한 거 있었던 건 다 넘어가버리고 그래가 식구가 많은데 어떡해. □□으로 가 안 되가지고 돈은 몇 푼 없지. 그래가지고 또 △△으로 갔어요. △△으로 가니까 어떻게 정착할 수 있나 싶어서 가보니까는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에 인제 돈이 돈도 얼마 안 남아서 돈이 인제 만 얼마가 남은 거 가지고 △△에서 인제 ○○으로 오니 역전 와가지고 어떡해. 가만 앉아가지고 갈 곳도 없지 어떡해. 애들은 배가고파 죽는다하지 딸내미하나 아들한테 딸은 그때 인제 너무 아파가 병원에 못 데리고 가고 하니까 애가 죽어버렸어. <참여자 2>

남편의 사망 후 살길이 막막한 참여자 7은 이것저것 해보지 않은 일이 없었다. 하지만 형편은 좋아지지 않았고, 가난의 꼬트머리에 몰린 참여자 역시 쪽방촌에 정착하게 되었다. 모아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살 곳은, 딱 부족한 돈만큼의 집이고 마을이었다. 그곳이 바로 쪽방촌이다.

이고댕기면서 옷장사도 했고 뭐 생선장사도 하고, 인삼장사도하고 오만잡것 다해봤지. 아유, 너무 보파리 장사하다가 보니까. 여기도 살기가 괜찮겠다하고 사글세를 얻어갖고 있다가 그렇게 됐지. (중략) 시골서 살다가 아들하고 살수가 없잖아. 아들은 어리고 그래 이 시내로 나왔지. 그래 아무것도 없이. 나와서 (처음에는) 사글세로 아들 데리고 나와서 그렇게 살았지. <참여자 7>

참여자들에게 쪽방촌 정착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가난 때문에 겪는 등 떠밀린 수동적 삶이라는 점이다. 가난의 굴레가 이들을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 떠나도록 만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참여자들에게 쪽방촌 정착은 단순히 거주지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총체적 변화를 요구하는 문제였다.

2. 쪽방촌 정착 후의 삶

참여자들은 남편의 상실 이후, 이전의 삶터를 등지고 새로운 삶터로 이주했다. 그러나 그것은 가난에 따른 수동적 선택이었다. 따라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없는 참여자들에게 이러한 삶은 매우 고단할 수밖에 없다.

가. 쪽방 관리

살 곳을 찾아 어렵게 쪽방에 정착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생계의 문제는 막막하기만 했다. 이 때 참여자들이 주로 하게 된 일은 쪽방을 관리하는 일이었다. 참여자들이 처음에는 단순히 월세가 싸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쪽방촌에 정착하면서 쪽방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소, 빨래 등의 허드레 일을 해주고 받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갔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수입은 비단 이것만이 아니었다. 쪽방의 주인은 따로 있는데, 참여자 2의 구술을 통해 알 수 있듯, 쪽방을 관리해 주는 대신 무료임대료 거주할 수 있었다. 이는 주거비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큰 혜택이었고, 따라서 오랫동안 이 곳에 머물 수 있는 동인(動因)이 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여기(쪽방) 다 청소 해주고 손님 오면 방 이렇게 저렇게 해주고 하니까. (중략) 그 저기 청소 해주고 그냥 빨래 같은 거 이렇게 해주고 하면 손님들이 이제 쫓 주고, 그 대신 내가 방에 공짜로 사니까. <참여자 3>

나. 존재의 이유: 자식만을 위한 삶

쪽방촌 정착 이후에도 참여자들의 삶은 만만치 않았다. 비록 허드레 일에 지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해진 근무시간 없이 일을 한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특히 겨울철은 손발이 얼 정도의 고통스러운 시기였다. 이들에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같은 사회법은 사치에 불과했다.

그래 갖고 그냥 참 사는 것이 고생이 마... 그때 그 손가락이 얼어갔고 이렇게 다 얼어가
지고 손톱이 이래 다 다 얼어갔고 이 손이 찬바람만 나면 이 손가락이 아파서. (손이)
시려워서 못 살아. 이게 이 손가락이 얼어버려. 발이고 뒤고 다 얼어가 발톱도 다 이렇게
생겼다. 여 봐 발톱 봐. <참여자 2>

그런데 이런 고통 속에서도 참여자들이 살아 나갈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그것은 ‘자식’이었다. 나의 삶의 이유가 바로 자식인 것이다. 참여자들에게 아이
들이 살 미래는 매우 중요한 삶의 현실이 된다. 내 아이가 살아나갈 시간을 걱정하고,
그 시간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한다. 이것은 참여자들이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
참여자 스스로를 벗어나는 체험을 한다는 의미에서 ‘초월적’이다. 한편 이러한 ‘초월적’
경험을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은 모성애적 특성으로 간주(Fromm, 1956)하고 있
다. 실제 참여자들은 자식의 미래를 위해, 가르치고자 노력했고<참여자 6>, 힘든 일은
시키지 않으려고 했다<참여자 4>. 내 아이가 살아나갈 시간을 걱정하고, 그 시간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것(자식)들 먹여 살리는 거 그것뿐이지. 그것들 어떻게 해서 먹이고, 어떻게 해도
가르치고 해야 되. <참여자 3>

나갈 때 지들은 하나라도 나 진짜 밥 한번 안 시켰어. 시집가서 지들끼리 해 먹었나
몰라도 나는 자식 열이라도 운동화까지 내가 다 빨아서 신기던 사람이야. <참여자 6>

살펴본 바와 같이 참여자들은 쪽방촌에 정착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았다. 그럼에도 이들이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자신을 자식을 위한 도구로 기꺼이 희생
하게 만들었다. 즉 자식의 욕구에 자신의 욕구를 종속시킨 삶을 살았던 것이다.

3. 현재의 삶: 고락상생(苦樂相生)

결혼이후, 경제적 책임을 홀로지고 아이들에게 헌신의 삶을 살아온 참여자들은 노년에 접어 든 지금 자신의 현재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여전히 경제적 궁핍함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스런 부분이 있다. 하지만 고(苦)는 락(樂)과 공존한다고 하지 않던가. 이들의 삶 역시 이리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먼저 고(苦)의 삶을 살펴볼도록 하자.

가. 고(苦)의 삶

1) 건강하지 못한 몸

모든 생명체는 탄생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 따라서 삶 뿐 아니라 죽음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참여자들에게도 육체적 고통과 죽음은 생(生)의 일부이다. 다만 우리는 노년의 질환으로, 그 사람의 삶의 여정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참여자들이 주로 있는 앓고 있는 병은 무엇일까? 허리 디스크 질환을 앓고 있고<참여자 3>, 관절도 좋지 못하다<참여자 6>. 과로로 인해 혼절하기도 했다<참여자 5>. 이는 모두 육체적 노동에 시달린 결과였다. 가난에 따른 스트레스와 함께 신체의 일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노동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몸이 곳 저 곳 성한 곳이 없다. 그래서 참여자 4는 약이 없으면 더 이상 살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허리가 디스크라 아주 힘들고 판 일도 못해 절대. 그만큼 내거 어디 일이라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여. <참여자 3>

2) 비수급자의 삶: '어중간'한 가난

지금까지도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참여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니다. 그 이유는 부양의무자 기준, 즉 자식으로 인해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국가로부터 생계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영세민을 만들라고 동사무소를 갔더니 우리 아덜이 딱 떠 우리 아덜이. 그런다고 안 된데. 그래갖고 못하는 거야. 뭐 아무것도 없어. 집이 내 집이 있어. 뭐가 있어. 그 아들 하나 때문에. <참여자 1>

그런데 이렇게 국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참여자들은 억울하기만 하다. 왜냐면 자식들은 실제 자신을 도와 줄 형편이 안 되고<참여자 1, 6>, 그럴 만한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참여자 2>. 그 뿐만 아니라 자식이 빚을 져<참여자 3>, 도움을 받을 기대마저 할 수 없다.

(자식이) 지 새끼들 가리키기도 대간하잖아. 안 그러? 지 새끼들 돈 받으면 지 새끼들 가리키기도 대간해. 지금은 형편들이 풍족하지를 못해. 거기도 이렇게 사는 것이 빠듯하게 살고. 그냥 참 주면은 받고, 안주면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어떡해. <참여자 6>

이러한 처지에서 자식의 도움을 바란다는 것은 매우 난망(難望)한 일이다. 그래서 참여자들은 자식에게 손을 벌릴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을 참여자 4는 ‘도움을 받지도, 주지는 않는’ 관계라고 구술하고 있다. 오히려 자식이 내게 요구하지 않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다. 이렇듯 참여자들 입장에선, 자식들도 힘든데 자신을 도와주는 것은 무리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식이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더군다나 노년에 이른 참여자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더 이상 내다팔기도 힘든 ‘잉여’의 몸뚱이를 지닌 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헌 옷을 주워 입거나<참여자 3>, 난방비가 없어 연탄불로 생활하고 있었다<참여자 모두>. 그리고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파지 줍기’ 정도였다<참여자 4>.

항상 옷 하나를 팬티 하나를 못 사 입고 남 이런 거 주면 입고 옷 다 주워서 입어요. 세탁소 같은데서 헌옷 나오면 주고 어디 쪽방 같은 데서도 갖다 입고 그렇게 이때까지 살아 나왔어요. <참여자 3>

한편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은 가족과의 단절도 야기시킨다. 전통 사회에서 조부모는 손자녀의 정서적 안정감 및 훈육을 주로 담당하였고, 가족 내에서 이러한 조부모의 역할은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으로 존재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는 할머니는 손자녀를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여긴다. 거의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가 상품의 형태, 즉 시장에서의 교환을 목적으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스스로를 손자녀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손자녀를) 안 만나요. 능력이 없어요. 손자들이 어디를 간다, 그러면 할머니로서 뭐를 줘야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만나. <참여자 1>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에 처한 참여자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참여자 1이 이와 관련해 생생하게 구술하고 있는데, 가난은 ‘입맛마저도 잃게 했다’고 한다. 한편 참여자 1은 자신의 가난을 ‘어중간한’ 가난이라고 구술했다. 이는 자식의 부양 능력 때문에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 이룬 말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서글퍼요, 선생님. 왜 서글프냐면 이 오래된 세월을 남 가진 돈 왜 나는 못 가질까, 그러지만은 죽을 날이 가차워지니까는 인제 돈 생각하면 뭐 하겠어요. 밥맛도 없어. 이제는 입맛도 없어. <참여자 1>

3) 생존의 이유: 죽지 못해 사는 것

인간은 흘러 간 과거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다갈 올 미래에서 자기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이러한 정체성과 가능성이 인간의 인간다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인간은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는데, 삶의 의미가 상실될 경우, 무기력증에 빠지곤 한다. 그렇다면 참여자들에게 있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참여자들은 과거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오직 생존만을 위해 살아왔던 삶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늘그막에 미래에서 희망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결국 참여자들은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병든 육신이 하루하루 삶을 지치게 할 뿐이다. 이렇듯 삶의 의미가 상실된 상황에서는, 고통 없이 죽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 된다.

지금 사는 것도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여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뭐.
 〈참여자 6〉

나. 락(樂)의 삶

동양의 전통적인 사유방식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두 속성이 하나의 연관체계 안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고틉(苦樂)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고틉과 즐거움은 상대적이며, 서로 분리할 수가 없다. 락(樂)을 상정함 없이 고틉(苦)을 말할 수 없고, 고틉을 전제함이 없이 락을 생각할 수가 없다(박승희, 2007). 예컨대 배꼽음이 없다면 배부름을 알 수가 없다. 그렇다면 참여자들에게 가난의 고틉 속에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1) 자녀지원군

앞서 살펴보았듯이, 참여자들이 쪽방촌에 정착해,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자식 때문이었다. 참여자들의 존재의미는 내 자신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타자인 자식의 미래에 달려 있었다. 따라서 자녀가 별 탈 없이 잘 성장한다면, 그것은 참여자들에게 최고의 즐거움 일 것이다. 참여자 6이 이와 관련해 구술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지만 가난한 동네에서 착하게 성장한 자식이 대견하기만 하다.

지금 여기서 (아들이) 술, 담배 안 먹고 엄하게 키웠잖아. 가도 술, 담배 안 먹고 이 동네 물어보면 알지만 우리 아들도 엄청 착해 착하게 컸어. 뭐 이 골목에서 애들 키우면 막 엉망으로 돼? (중략) 첫째, 며느리가 잘 들어와 갖고 또 그 다음엔 우리 아들이 술 먹고 뭐 어찌고저찌고 하지도 않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그 둘이 뭐 알콩 달콩 수입은 적어도 속 썩일 일은 없잖아. 〈참여자 6〉

그 뿐만이 아니다. 자식은 나를 이해해주는 존재이다. 내가 일방적으로 도움만을 제공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 자식은 내게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참여자 3이 이와 관련해 구술하고 있는데, 아들은 누군가가 자신한테 잘 못하는 것을 볼 수 없는 ‘정서적’ 지원군이다.

가끔 술 잘 먹고 와 마음은 착한데. 술 한 잔 먹고 와도 소리도 없이 자고 엄마라면 뭐 끔찍하게 생각하고 근데 이게 표현을 안 해 내성적이라. 나라고 하면 그냥 끔찍하고 저는 누가 엄마한테 잘못 하는 거 보면 못 본데. <참여자 3>

다른 한편, 자녀는 ‘경제적’ 지원군이기도 하다. 참여자의 자식들은 비정기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기도 한다<참여자 4, 6>. 그런데 참여자들이 처한 현재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해 보면, 자녀의 경제적 도움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자식들도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를 도와주려는 마음가짐이 참여자들은 고마운 것이다. 결국 현상(드러난 것)은 경제적 지원이지만, 본질(실제로 그러함)은 정서적 지원이다.

어떤 때는 딸네들이 조금 씩 주고 그렇게 하면 또 어떻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그냥 혼자 사니까 그냥 병원비 같은 거 그냥 이런 거는 자식들이 주니까 그렇게 살아요 <참여자 6>

2) ‘쪽방촌’의 관계맺음: 차별이 없고 인정이 넘치는 관계망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Heidegger)는 인간의 ‘있음’, 즉 존재란 자기 자신과의 관계 맺음이자, 타인과의 관계맺음(이기상, 2008)이라고 했다. 앞서 살펴보았듯 인간은 자기 자신의 지나온 과거사 그리고 앞으로 닥칠 일과 관계를 맺으며, 정체성과 가능성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타인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의미의 세계를 생성한다. 그래서 인간의 있음은 단순히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관계 맺으면서 ‘있음’이다. 이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있음’은 여기 이 자리에 고정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어느 한 사람의 ‘본질’이 과연 어느 한가지로 말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 물음을 던질 수 있다.

이는 참여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들이 겪고 있는 가난을 사회의 고정된 시선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죽음마저 서러운 쪽방촌 사람들’(시사저널 1월30일자, 1215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외로운 인생을 살다가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쪽방촌 사람들을, ‘조용하고 관계망이 좁은 사람’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기사 내용은 실상 쪽방촌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참여자들은 관계 맺는 ‘타자’, 즉 쪽방촌 이웃들과 어떤 관계맺음의 양상으로 살아나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참여자 2에게 쪽방촌은 차별없고, 인정이 넘치는 관계망이다. 참여자 3은 이러한 이웃관계를 ‘밥을 함께 먹는’ 관계로 구술하고 있다. 한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하는 사람을 ‘식구(食口)’라고 하는데, 이렇듯 참여자들에게 이웃은 곧 가족을 의미한다. 참여자들은 이웃들과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고<참여자 5>,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호혜적 관계를 형성한다<참여자 4>. 참여자 6은 쪽방촌에서의 이러한 삶을 아파트 생활보다 낫다고 구술한다. 그런데 아파트는 현대사회에서 어떤 의미인가? 거주지로서 ‘편리’의 대명사이기도 하지만, ‘관계 단절’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결국 쪽방촌에 있는 것이 낫다는 것은 이들의 기준에 의하자면, 편리보다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웃사람들 만약에 판사, 검사집이면 뭐해 사람 차별하고 다 마 별것도 아니지. 여기는 안 그래. (중략) 또 돈이 얇만 많으면 뭐하냐 이거야. (여기는) 사람이 인정을 서로 베풀고 사는 동네니까는. 월세 없어도 뭐 한 가지가 다 나오면 이렇게 나눠먹을 줄 알고 그런 인심이 있는 거여. <참여자 2>

이러한 의미의 동네가 이제 참여자들에게 ‘고향’과도 같다. 고향의 평면적 의미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지만, 우리가 고향에 대한 애뜻함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마음속 깊이 간직한 정든 곳이라는 심상(心象)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여자들은 ‘마음’의 고향으로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참여자들이 인식한 쪽방촌은 인정이 넘치는 곳이고, 이런 곳을 참여자들은 마음의 고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쪽방촌 바깥의 주류의 시선과는 사뭇 다르다. 바우만(Bauman)은 가난은 사회적이면서도 심리적인 조건이라고 했다. 인간 실존의 적절성이 그 사회가 정의하는 남부럽지 않은 생활수준으로 측정될 때, 그 수준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은 그 자체로 괴로움과 고통, 굴욕의 원인(Bauman, 2004)이라는 것이다.

참여자들 역시 고(苦)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듯, 경제적 궁핍함에 따른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이 분명 있었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이런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자존(自存) 능력 또한 갖고 있었다. 쪽방촌 내 이웃들과의 ‘정서적 유대’를 통해, 쪽방촌을 살만한 곳으로

새롭게 구성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참여자들에게 쪽방촌은 경제적 수준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지는 ‘짜구려’ 삶터가 아닌, 인정이 넘치고 살 만한 삶터였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쪽방에 거주하는 여성 독거노인의 삶을 탐색해봄으로써 그들의 경험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 쪽방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독거노인 7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쪽방에 거주하는 여성 독거노인들은 젊은 시절에 실질적인 가장인 남편을 상실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공통점은 이들로 하여금 생계를 꾸리게 하는 기제로 작용하여 일거리가 있고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지금의 쪽방촌으로 유입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곧 쪽방에 거주하는 여성 독거노인이 쪽방촌에 정착하게 된 경로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쪽방촌에 유입된 이들은 젊은 시절부터 허드렛일과 거친 일을 도맡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는 경험을 하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렇게 힘든 삶을 기꺼이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자식에 대한 애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오롯한 고생으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미의 초월적 모성애를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으로 체화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의 전쟁은 결국 건강하지 못한 몸을 전리품으로 남겼고, 체화되었던 그 시절의 고생이 노인이 된 현재에 이르러 질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발현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힘들게 키운 자녀들 역시 힘든 세상에서 제 밥벌이 하느라 이들을 돌볼 수 없어 제 한 몸의 생활을 위해 여전히 날품팔이나 폐지를 수거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실질적인 부양자가 없어 돌봄의 제공을 받지 못하지만 법적인 부양자가 있어 국가로부터 지원도 받지 못하는 모순적인 현실이 만들어낸 비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들의 삶은 죽지 못해 사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이러한 이들의 고된 삶은 빈곤한 여성 독거노인의 상당수가 건강의 문제를 겪고 있고 일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자녀로부터 부양을 기대할 수 없어 여전히 힘든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유광수 ·

박현선, 2003; 박기남, 2004; 백학영, 2006; 심문숙, 2007; 박미정, 2010). 그러나 이러한 여성 독거노인의 삶은 쪽방에 거주하는 남성 독거노인의 삶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여성의 경우, 가족을 살리기 위해 젊은 시절에 유입된 곳이 지금의 쪽방이라면 남성의 경우, 경제적인 위기나 가정 불화 등의 문제를 겪고 가정이 해체되는 등의 절망적 상황을 당면한 중장년 이후 시기에 빈곤의 극한에서 쪽방을 선택(허소영, 2009)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현재 동일한 쪽방촌에서 생활하고 있더라도 남성과 여성 간에는 쪽방 유입 경로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한편 생활 양상에서도 남성과 여성 노인은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남성 노인은 가족과 관계가 끊어진 경우가 많아 '마음 둘 곳 없어 외로운 신세'인 반면(허소영, 2009) 여성 노인은 자녀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은 받지 못하더라도 심리적·정서적으로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성 노인의 경우 쪽방에 거주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편견과 차별에 주눅드는 것'으로 구술하고 있는 반면(허소영, 2009) 여성 노인은 쪽방과 쪽방촌을 '차별이 없고 인정이 넘치는 곳', '고향과도 같은 곳'으로 구술한다는 차이도 함께 발견할 수 있었다.

이상의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점들은 향후 이들 쪽방에 거주하는 여성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활용 가능한 기초적인 자료 및 이론의 토대로 활용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회복지 정책적·실천적·학문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쪽방이 밀집한 지역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구의 장소가 되었던 쪽방촌 뿐만 아니라 서울, 대구, 인천 등 쪽방이 밀집해 있는 지역은 매우 허름하고 낙후되어 있어 재개발되어야 할 지역으로 꼽힌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을 재개발하는 것이 최선의 도시 계획인지, 또 지역의 재개발이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지, 궁극적으로 쪽방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정책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들은 빈곤하기 때문에 수중에 있는 자원으로는 인근의 또다른 빈곤 지역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 그 곳 역시 머지않아 재개발 등의 도시 계획의 정책을 통해 처치해야 할 슬럼화된 빈곤지역으로 부각될 것이다. 즉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미관이 깨끗한 지역으로 변화시키고자 실시되는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재개발은 표면상으로는 거주자들로 하여금 보다 나은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계기로 보일 수 있지만 이면에는 갈 곳 없는 이들을 다시 한번 벼랑으로 내모는 위험과 빈곤 지역의 이동 및 확대라는 문제를 내포한다.

더욱이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쪽방이 '남들 눈에는 쪽방으로 보이고', '손가락질 한다 해도'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편하고 안락한 삶의 터전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여생을 편안하도록 돕는 하나의 정책적 방안으로 편리한 생활을 위한 부대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마을에 공동 부대시설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어떠한 이해 관계자보다 지역 주민 당사자들을 위해 지역 재생을 통한 도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이들의 보다 만족스러운 생활을 위해 창문이나 보일러 교체 등을 포함한 건물의 리모델링 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다면 그러한 지원이 건물 주인이 아닌 세입자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건물을 개보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많은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임대업을 지원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재생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은 결국 힘없고 빈곤한 노인들과 도움이 필요한 거주자들을 위한 것임을 명백히 하고 문제의 발생 시 건물 주인을 처벌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지역 재생은 지자체에서 주도하되 건물 주인이나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협조가 없다면 최상의 효과를 이룰 수 없으므로 쪽방상당소나 홈리스 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서로 간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 독거노인들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대책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들은 법적으로 부양 의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빈곤한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즉 이들은 수급자보다 열악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 실질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 동안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부양의무자 제도'를 지적하고, 이를 폐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사실상 부양의무자 제도의 문제는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 그 자체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참여자들은 "자식들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나를 도와 주냐며" 탄식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은 부양의무자 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30%이상이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다. 예컨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4인 가구 기준)이, 4인 가구 최저 생계비 1,495,550원(2012년도 기준)의 130%인

1,944,215원 이상이면 부양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한국노총에서 산출한 2012년도 4인가구의 표준생계비 월 527만원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한 액수이다. 따라서 참여자들의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 의무자 기준에 대한 푸념은 이해할 만한 수준이고, 이에 따른 부양의무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른 한편 실천적 대책도 필요하다. 쪽방거주 여성독거노인의 구체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개별화된 개입전략이 필요하다. 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관 협동의 복지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협력체계는 민·관의 ‘통합’ 사례관리를 가능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관에서 제공하는 공식화된 제도적 지원과 민에서 제공하는 비공식적 지원의 결합은 클라이언트에게 제한된 자원 내에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통합 사례관리 영역 내에 쪽방 거주 여성 독거노인을 클라이언트로 적극 발굴하여, ‘틈새’ 없는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같이 빈곤 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취약 계층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와 조사는 빈곤과 질병, 주거 취약이라는 다양한 위험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적합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방법을 이용하여 특정 지역 쪽방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독거노인들의 삶을 탐색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으므로 다른 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더불어 각 취약 계층의 삶을 조금 더 깊이 드러내고 거주자별 특성에 따른 생활상을 비교·분석하는,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이현주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여성/빈곤/가족 분야이며 현재 빈곤 지역, 미혼모, 여성 노인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kkakkounglove@hanmail.net)

안기덕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인천재능대학교 사회복지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인복지, 지역복지 등이다. (E-mail: dool21@jeiu.ac.kr)

참고문헌

- 강유진, 한경혜(2006). 한국여성노인의 생애사 분석을 통한 노년기 삶의 이해.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3), pp.99-126.
- 권중돈(2012).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 권지성(2008). 쪽방 거주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문화기술지. 한국사회복지학, 60(4), pp. 131-156.
- 경향신문(2013). 쪽방촌, 도심 속 독거노인의 삶. 4월 23일자.
- 김기태, 박봉길(2002).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사회적 지지망. 한국노년학, 20(1), pp.153-168.
- 김미량(2008). 대구지역 쪽방거주자들의 생활실태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구.
- 김민진(2009). 도시빈민지역 주민의 주거 및 이주특성.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구.
- 김선미(2011). 쪽방 등 저렴거처에 대한 지역재생적 단초. 제2회 주거복지컨퍼런스 자료집.
- 김수현, 강현정, 김윤정(2008). 농어촌 여성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3(3), pp.51-71.
- 노병일, 윤경아(2004). 주거빈곤층의 삶과 터전. 서울: 다운샘.
- 박기남(2004). 생애구술을 통해 본 독거 여성노인의 삶. 페미니즘 연구, pp.149-194.
- 박미정(2010). 국민기초생활수급 여성독거노인의 일상생활연구. 보건사회연구, 30(1), pp.62-91.
- 박명화 외 14인(2009). 2008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박승희(2005).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백학영(2006). 저소득 독거노인의 빈곤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31, pp.5-39.
- 석재은, 김용하, 김태완(2003). 여성의 빈곤실태 분석과 탈빈곤 정책과제 개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성미혜, 임영미, 주경숙(2011). 여성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 한국보건간호학회, 25(1), pp.95-106.
- 송민경(2005). 쪽방노인 생활실태에 따른 정책 제안 연구: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서울.

- 송영달, 손지아, 박순미(2010). 독거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분석. 한국노년학, 30(2), pp.643-660.
- 시사저널(2013). 죽음마저 서러운 쪽방 사람들. 1월 30일자 1215호.
- 심문숙(2007). 저소득 독거노인의 생활경험. 한국보건간호학회, 2(2), pp.171-181.
- 안기덕(2012). 국민기초생활수급 여성독거노인의 생애사: 사회적 배제와 행위주체성(agency)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2(2), pp.447-465.
- 유광수, 박현선(2003). 독거노인과 가족동거노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노년학, 23(4), pp.63-179.
- 이기상(2008). 존재와 시간: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 파주: 살림출판사.
- 이봉재, 오윤진(2008). 가구형태에 따른 노인의 자살생각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6(10), pp.49-57.
- 이소정(2006). 판자촌에서 쪽방까지: 우리나라 빈곤층 주거지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29, pp.167-208.
- 이신영, 김은정(2011). 독거노인의 자녀와의 사회적 지원 유형과 관련요인. 가족과 문화, 23(1), pp.105-136.
- 이인정(2009). 초고령 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학적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1), pp.359-381.
- 이준호(2001). 서울시 쪽방지역의 존속요인.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이현주, 엄명용(2013). 쪽방을 관리하는 여성 독거노인의 쪽방촌 거주 경험과 의미. 한국가족복지학, 39, pp.143-176.
- 이형실(2003). 농촌노인의 세대 간 사회적 지원교환과 생활만족: 성별 및 연령집단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1(4), pp.57-69.
- 전길양, 김정옥(2000). 배우자 사별노인의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 및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1), pp.155-170.
- 정병은(2007). 세대 간 지원교환의 호혜성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7(2), pp.503-518.
- 정혜정, 김태현, 이동숙(2000). 독거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 연구: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0(2), pp.49-70.
- 채명진(2008). 불량주거 실태와 정책과제: 쪽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학회, 14, pp.123-168.

- 최선화(1999).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노인의 빈곤원인. *한국가족복지학*, 3, pp.187-211.
- 최영(2005). 가구형태에 따른 노인의 건강상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9, pp.123-149.
- 통계청(2008). *고령자 통계*. 서울: 통계청.
- 하성규(2000). *쪽방지역 실태조사 및 효율적인 정책개발*. 서울: 한국도시연구소.
- Ha, M. and Park, H.(2002). A study on health status & nutritional condition of solitary elderly in urban city. *Korean Gerontol nurs*, 4(2), pp.123-133.
- 한경혜(2004). 생애사 연구를 통한 노년기의 삶의 이해. *한국노년학*, 24(4), pp.87-105.
- 한혜경, 이유리(2009). 독거노인의 정신건강 수준과 영향요인. *한국노년학*, 29(3), pp.805-822.
- 허선영(2003). *도시 저소득층 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생활만족도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Bauman, Z. (2004). 이수영 역. 2010. *새로운 빈곤*. 서울: 천지인.
- Choudhury, S. (1997). Life-cycle aspects of poverty among older women. *Social Security Bulletin*, 60(2), pp.17-36.
- Dean, A., Kolody, B., Wood, P. (1992). The influence of Living alone on depression in Elderly persons. *Journal of Aging and Health*, 4(1), pp.3-18.
- Dwyer, J., Lee, G., Jankowski, T. (1994). Reciprocity, Elder satisfaction and caregiver stress and burden: The exchange of aid in the Family caregiving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pp.35-43.
- Fromm, E. (1956). 황문수 역. 2011. *사랑의 기술*. 서울: 문예출판사.
- Hoden, K., Kuo, H. (1996). Complex marital histories and economic well-being. The continuing legacy of divorce and widowhood as the HRS cohort approaches retirement. *The Gerontologist*, 36, pp.383-401.
- Hooymann, N., Kiyak, H. (2010). *Social Gerontology.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9th ed.). Boston: Ally & Bacon.
- Knight, Tess , Ricciardelli, Lina (2003). Successful Aging: Perceptions of Adult Aged Between 70-101 year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6(3), pp.223-245.

- Litwin, H. (2004). Intergeneration exchange patterns and Their correlates in an Aging Israel Cohort. *Research on Aging*, 26(2), pp.202-223.
- Lowenstein, A. R., Gur-Yaish, N. (2007). Reciprocity in Parent-Child Exchange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A Cross-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Issues*, 63(4), pp.865-883.
- McInnis, G. Y., White, J. H. (2001). A phenomenological exploration of loneliness in the older adult. *Arch Nurs*, 33(6), pp.812-819.
- Mui, A., Burnette, J. (1994). A comparative profile of elderly persons Living alone and Those living with other.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2, pp.5-26.
- Warehner, K., Crystal, S. (1995). The impact of coincidence on economic well-being of elderly Widows. *Journal of Gerontology*, 50(4), pp.250-258.
- Yeh, S., Lo, S. (2004). Living alone, social support and feeling lonely among the elderly.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2(2), pp.129-138.

The Study of life of Elderly Women Living Alone in a Shabby One-room

Lee, Hyun Joo

(Sungkyunkwan University)

Ahn, Gi Deok

(J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life of the elderly women who shabby one-room dwellers in which they also have been living alone. To accomplish this purpose, researchers had interview with 7 elderly women who shabby one-room dwellers in which they also have been living alone, and analysed the data through inductive categorizat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cluding 3 meaningful subjects and 9 concepts were as follows: 'Shabby One-room Town settled clue' ① The loss of her husband ② settling Shabby One-room Town 'Life after settling Shabby One-room Town' 1) Difficulties: ① Shabby One-room management ② Reason for the existence: The life for children, 'The current life' ① Unhealthy life, ② Non-beneficiaries of the life: The odd poor' ③ Survival of the reason: Living will never die, 2) Joy: ① Child support, ② relationship in in a shabby one-room town: support system what is full discrimination and recognition.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for policy, practice, and theory have been provided, which might be helpful for the elderly women who have been living alone in the shabby one-room town, as well as practitioners.

Keywords: Elderly Women Living Alone, Shabby One-room, Poverty, Qualitative Study